



5장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

제 5 장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대표인 동시에 사람의 대표가 되어야 하였다. 하나님을 대표하기에 그 부르심도 하늘로부터 따라와야 했다. 또한 사람을 대표하기에 본래는 온전한 사람이어야 했다.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난 사람이어야 한다. 인간이 출생하는 방법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간처럼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어야 한다. 제사장이 흠 없는 속죄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흠 없는 속죄제물이 되어야 하셨다. 그렇게 흠 없는 완전한 생애를 요구받으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육신이 걸어가는 길을 걸으셨다.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멸기세택의 반차를 좇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은 독자들에게 관철시킨다.

- A. 히 5:1~10,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
- B. 히 5:11~14,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

A. 제사장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그리스도(5:1~10)

1.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왜냐하면) - 원문의 ‘왜냐하면(헬, 가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생략되었다. 4장의 마지막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 - 율법에는 오직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였다. 그러므로 그 대표할 사람도 마땅히 사람이어야 하였다. 옛 제도 하에 제사장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제사장이 되셔야 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일 - 대제사장은 실상 하나님을 대표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베푸시는 정결과 은혜를 얻도록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중보자) 역할을 했다. 본문의 “하나님께 속한 일”이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다.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일이 그것이다. 하나님의 권리에 속한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사람에게 전가되도록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다. 뿐만 아니라 부지런히 질병을 진단하고(레 13, 14장), 정결의식을 행하고(레 14장), 가르치는 일들을 행했다. 옛 언약 하에서 행한 제사장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였다.

2.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이니라”

대제사장의 직분은 동정하는 것이다. 목사들의 직분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안아 품는 것이다. 죄인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과 태도로 죄인과 함께 고민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이것이 제사장의 덕목인 ‘용납’ 인 것이다.

죄인에게 돌을 던지고 상처 난 말을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이 아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용납하라고 했는가? 무식한 사람, 미혹한 사람이다. 옛말에 ‘불학무식(不學無識)’ 이라는 말이 있다. 그 끝에 꼭 ‘놈’ 자를 붙여 하게 되는 말인데, 뜻을 풀어보면 ‘배움이 없어 아는 것이 없다’ 라는 의미이다. 본문의 “무식하고” 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그노에오’ 도 역시 ‘알지 못하다’, ‘이해하지 못하다’ 라는 뜻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히 ‘불학무식한 놈’ 이라고 하듯이 사람들의 눈에 무시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주님은 어찌하셨는가? 또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 18:6, 7).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 (마 25:40).

미혹한 자 - ‘잘못에 빠진 사람’ (현대인의 성경), ‘유혹에 빠진 사람’ (표준새번역)을 말한다. 이러한 사람을 제사장이 건져내는 것은 힘에 겨운 일이다. 동정의 마음, 그의 처지를 자신의 처지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죄인을 용납하고 건져낼 수 있는 것이다.

자기도 연약에 싸여 있음 - 제사장들도 연약함(weakness)을 가지고 있다. 본문의 ‘연약’ (헬, 아스테네이아)은 ‘육신의 연약함’, ‘도덕적 약점’ 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의당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처지를 동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극히 교만한 마음과 배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요 7:9). 바리새인의 눈에는 알지 못하는 무지가 저주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3.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죄 있고 연약한 제사장들이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으로 중보 하는 일을 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마땅히 속죄제를 드려야 하였다. 제사장 자신도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신분이었다. 제사장 역시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운 자각이 있어야 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맞이하는 대속죄일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야 했던 것이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인간 제사장의 죄 있음과 불완전성을 드러내어 새롭고 무흠한, 즉 완전한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4. “이 존귀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 지파만이 취할 수가 있었다. 이 직분은 너무나 신성한 것이어서 고라(민 16장), 사울(삼상 13:8-14), 웃시야(대하 26:16-21)같은 유력한 사람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탐낼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응징하셨다.

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

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대제사장의 첫째 조건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로써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오리지널 사람이 되셔야 하였다. 모든 사람이 출생에 의하여 인류와 한 혈육에 속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여자에게서 나시고” (갈 4: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 (2:14)을 입으셨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다 - ‘낳다’ (헬, 젠나오)는 말은 ‘출산하다’ 라는 말과 같다. 이것은 신성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서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아들이라는 이름은 “만유의 후사” (1:2)로 장차 오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심을 의미하고, “많은 아들” (2:10)을 대표하는 이름이었다.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고 잃어버린 아담의 기업을 이을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출생하셨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의 첫째 요건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성으로 세상에 출생하신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는 말은 시편 2장 7절의 다윗의 글을 인용한 것이다. 바울은 이 절을 예수님의 인성으로서의 죽으심과 부활(행 13:30-35)을 가리키는 문맥으로 차용하였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땅에 사셨지만 출생으로 말미암아 인류와 동맹을 맺으셨고” 95), 인성으로서의 승리와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을 확신하게 한다.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95) 복음주석(Ellen G. White, Bible Commentary), 눅 1:35.

앞서 기술한 것처럼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자기 자신의 연약함(죄)으로 인하여도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자가 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열을 좇아난 대제사장을 필요로 하였다.

이 일은 이미 시편 110편 4절에 예언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적 종교 체계를 따라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율법을 따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대제사장이 되셨다. “여호와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 110:4). 이처럼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좇아 제사장이 되셨다. 레위의 존귀한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조차도 십일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았던 멜기세덱의 반차 곧 더 높은 반차를 좇는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셨다.

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육체에 계셨다 - 바울은 예수님의 “육신” (헬, 사룩스)을 “죄 있는 육신” (롬 8:3)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 (4:15)고 말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은 “소욕” (갈 5:16-17)을 가진 존재였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약 1:14-15). 욕심 즉 육체의 소욕에 미혹되는 것은 욕심이 잉태되는 것과 같다. 육체의 소욕은 저항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의지가 동의하고 선택할 때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 이 있는 인성을 갖고 계셨다. 그러했기에 겟세마네에서 “죽음으로부터” (out of death)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격렬한 외침, 울부짖음,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리셨던(마 26:36-44; 눅 22:39-44; 막 14:32-41) 것이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죄 많은 인간들의 대리자와 보증인으로써 기도하시고 들으심을 얻어 부활하셨다. 죄의 수치와 죽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구원을 얻으신 것은 그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보통 사람과 같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8.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을 배우셨다. 배우셨다는 말은 ‘이해하다’, ‘습관 또는 버릇이 들다’ 라는 뜻이다. 어디에서 배우셨는가? 고난 가운데 배우셨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같은 조건, 같은 고난 속에 계셨고 생애 하셨다. 처음부터 어떤 별다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은 조건 속에서 순종을 배우셨고, 모든 인간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을 또한 이루신 것이다.

[인성으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9.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함은 시험을 통해 증명되었다. 예수님은 자라나는 매 단계마다 완전한 분이셨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그 온전함이 증명되었다.

“온전하게 되” 대(헬, 텔레이오오)라는 말은 ‘목표에 도달하다’, ‘성취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어릴 적부터 도덕적으로 완전하셨지만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완전하심을 증명 받으셨다는 것이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 예수님은 통곡, 눈물, 고난의 경험을 통해 모든 인간이 겪는 시험을 경험으로 이해하시고,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지 아심으로 시험받는 인류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 기나긴 침묵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촌극이 있다.

세상 종말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평원에 뿔뿔이 흩어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앞에 비취는 눈부신 빛으로부터 몸을 움츠렸고

맨 앞부분 가까이에 있는 몇몇 집단은 격하게 이야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어?”

그가 고난에 대해 어떻게 안단 말이야?”

평원 건너편 저 멀리에는 그런 집단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인간들이 견뎌내기 위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할까?”

그래서 이들은 가장 많이 고난 받은 사람들을 대표로 뽑아 파견했다. 유대인, 흑인, 히로시마에서 온 사람, 지독하게 불구가 된 관절염 환자,

탈리도마이드로 인한 기형아 등이었다.

그들의 결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야 한다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그의 출생의 합법성이 의심을 받게 하자.

그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주어서 그가 그 일을 하려 할 때

그의 가족들조차 그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하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도록 하자.

그가 잘못된 비난을 받고, 그가 고난을 당하게 하자.

마지막에 혼자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가 무섭게 맞보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것을 입증해 줄 많은 무리의 목격자들이 있게 하자."
각 지도자들이 자기 몫의 판결을 발표할 때,
모인 사람들의 무리로부터
찬성의 술렁거림이 올라왔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판결을 발표하는 것을 마쳤을 때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다른 말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미 그 형벌을 다 당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인성으로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

10.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본 절은 9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 으므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 (표준새번역, 공동번역)다는 뜻이다. 만일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과 같이 되셔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 이 될 수도 없고 “대제사장으로 임명 받으실” 수도 없으셨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는 시험받는 인생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 죽음을 앞에 두고 드리신 심한 통곡과 눈물, 그로 인한 하나님의 들으심(부활)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을 말하고 나아가서는 구속의 경륜에 들어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신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리고 모든 인간을 위하여 완성하신 삶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직분을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셨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4:16) 수 있는 이유로 충분하다. 왜인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B.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되라(5:11~14)

11.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하므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제 바울은 심오하고, 어려운 주제에 접근하기 전에 더 깊은 이해를 촉구하기 위해 잠시 독자들의 마음에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모형적인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와의 관계,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단단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독자들의 태도가 필요하였으며, 모든 지각을 사용하고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독자들 자신의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 하였던 것이다.

[도의 초보를 극복하라]

12.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탄식이 들어있다. 신앙을 그렇게 오래 하였지만, 이전에 배운 기초적인 복음의 진리들마저도 다시 배워야 할 답답한 처지를 바울은 한탄하였다. 세상을 복음화 해야 할 사명을 위임받은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어려

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탁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엄마 품의 젖이나 사모하는 영적 난쟁이가 되어 있었다. 더욱이 어린아이가 무 분별하게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영적 판단력은 어두워져 있었다.

단단한 식물 - 그들은 이제부터 바울이 증거 하고자 하는 사실-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양심의 온전(히 9:9),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6:19; 10:19-22)- 등에 관한 단단한 식물을 감당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다.

바울의 단단한 식물에 관한 기술은 7장부터 멜기세덱의 설명으로 다시 시작된다. 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광택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수고를 게을리 하는가! 자신들의 영원한 운명을 영적인 목사, 지도자에게 의존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장차 올 흔들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엡 4:14) 되도록 각자가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13.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영적인 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의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들은 의에 이르는 거듭남의 경험이 없다. 오늘날 말씀을 듣지만 먹지는 않는 사람들이 많다.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으로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14.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 - 영적으로 성숙한 자 혹은 완전한 자이다. 완전한 자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한 자이다. 장성한 자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연구하는데 게을리 했다. 그러므로 당시의 현대진리인 성소제도에 관하여 너무나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진리가 아직 닫혀 있다.

“내가 알기로는, 성소에 관한 문제가 과거 수년 동안 우리들이 중요시했던 것과 같이 현재에도 의와 진리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원수는 사람들을 진리에서 이탈시키고 있다. 그 원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이 진리에 합당하지 않은 그릇된 학설을 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성경 절들을 수집하는 데 열중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한다.” 96)

많은 사람들이 성소진리와 하늘 중보사역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 영적 난쟁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데 있어서 너무나 미숙한 가운데 놓여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든지 잃어버리든지 할 것이다.” 97)

“무엇이 진리인가? 가 그대의 질문이 되게 하라 무엇이 진리라고 지금

96) 복음 교역자(Ellen G. White, Gospel Worker), p. 302.

97) 각 시대의 대쟁투(Ellen G. Whit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p. 488.

까지 믿어왔는가가 아니다. . . . 하나님께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그대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라.” 98)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는 가장 부지런한 노력과 인내성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 마치 광부가 땅 속의 금광을 찾아 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열심히 끈기 있게 찾아야 한다. 매일의 연구에 있어서, 성경을 절절이 배워 가는 방법은 매우 유익하다. 성경을 연구하는 자는 성경의 한 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그 속에 어떤 사상을 두셨는지 확실히 알기 위하여 모든 생각을 계속 집중하여, 그 사상이 자기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 의미가 분명해질 때까지 한 절씩 연구해 가는 것은, 일정한 목적도 없이, 적극적으로 어떤 교훈을 얻으려는 생각도 없이 다만 여러 장의 성경을 통독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 99)

“만일 사람들이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의 정부의 계획을 이해할 것이다.” 100)

98) 리뷰 앤드 헤랄드(Allen G. White, The Review and Herald), 1902. 5. 25.

99) 교육(Allen G. White, Education), p. 189.

100)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Allen G. White, Counsels to Parents,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Christian Education), p. 440.